

“휴가철, 후 타이어부터 점검을”

지난해 7~8월 ‘핑크’ 사고 198건 출발 전 마모·공기압 점검 꼭 해야



전문가가 알려주는 휴가철 타이어 관리요령

- ▲타이어의 옆 부분에 있는 삼각형(△) 표시 외부부분의 돌출 정도를 확인, 홈보다 밖으로 나타날 경우 교체
- ▲비포장 도로 주행 후에는 타이어 홈 사이에 먼지나 이물질 제거
- ▲휠라임먼트와 타이어 밸런스 정기적인 점검
- ▲승용차의 공기압은 평소 28~32PSI이지만 고속도로 주행시 2~6PSI가량 추가 공기주입
- ▲2~3시간 운행 후 10분간 휴식
- ▲계절에 맞는 타이어 사용
- ▲타이어 생산연도 확인으로 오래된 타이어 교체(타이어 옆 숫자가 '3007'이면 2007년 30주째 생산제품)

한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셋째, 편마모나 찢김 등의 외부 손상으로 인한 위험이다. 가족단위의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는 탑승인원 증가와 과적, 과속으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높아진다. 일반 타이어의 경우 한계치를 조금 넘는다고 해도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손상이 있는 타이어는 주행 중 파열돼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편마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왔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휴가길은 언제나 신나고 들뜬다. 하지만 장거리 자동차 여행의 발이 돼줄 타이어 관리에 소홀하면 자칫 즐거운 휴가가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철인 7~8월에 타이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98건이나 발생해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타이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뜨거워진 아스팔트, 비포장도로, 빗길 등을 달리다가 생긴 참사다. 금호타이어 A/S팀이 지난 2005~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5곳에서 휴가차량 8천464대를 점검한 결과 ▲공기압 부족 5천417건(64%) ▲밸런스 이상 1천632건(19.3%) ▲편마모 1천352건(16%) ▲핑크 932건(11%) ▲공기주입구 노후 및 손상 821건(9.7%) 등이 발견됐다. 특히 핑크 난 차량이 금방이라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도, 운전자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또 휴가차량 3천600대의 스페어 타이어(Spare Tire)를 살펴보니 ▲공기압 부족 2천건(55.5%) ▲노후화 1천401건(39%) ▲휠(wheel)불량 135건(3.8%) ▲잘림 등 손상 561건(15.6%) ▲핑크 등 수리 필요 819건(22.8%) ▲완전히 손상돼 주행을 불가능한 런플랫(run-flat) 상태가 464건(12.9%)으로 나타나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불량’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호타이어 고객센터의 조

언을 들어보자. 첫째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을 들 수 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노면과의 마찰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타이어 외형이 물결처럼 굴곡이 생겨 결국 타이어 파열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가출발 전 평소보다 공기압을 10~20% 높여야 한다. 둘째는 타이어와 휠 사이 또는 타이어 표면의 홈 사이에 작은 못이나 날카로운 금속물질이 박혀 있는 경우다. 당장은 괜찮아도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빠지기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레저용 차량의 타이어는 표면의 홈이 넓어 이물질이 끼기 쉽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



휴가길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타이어 점검이 필수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타이어전문점에서 15일 휴가를 떠나는 고객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화배우 문근영씨의 애장품이 제 88회 전국체전 홈페이지(http://88sports.gwangju.go.kr)에서 경매 중이다. 경매 중인 물건들은 광주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문씨의 어머니가 지난 7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내놓은 11점 가운데 몽블랑 만년필과 볼펜, 펜파우치 등 4점. 문씨의 어머니는 “근영이가 소속

배우 문근영 애장품 경매 만년필 등 4점...장애인 체육팀위해 기증

사로부터 선물로 받아 애장하던 것들로 어려운 운동선수들과 장애인 체육팀 등을 위해 기증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들 기증품 가운데 비교

부터 시작했고, 16일까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도록 했다. 최종 낙찰자 확인과 물품인도는 (재)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062-655-8975)에서 맡는다. 앞서 광주시 공무원 1천500여명은 지난 7일 나눔장터에서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과 아동도서 등 3천여점을 기증했다. /김주정기자 jjnnews@

“중앙공원 내 불법경작 단속하라”

풍암·금호동 등 주민 3,093명 서구청에 진정서

경작지 늘리려 자연 훼손 크게 늘어

광주시 서구 주민 3천여 명이 중앙공원 내 불법 경작을 단속해달라는 진정서를 서구청에 제출했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회장 김재영)은 15일 “풍암·금호·쌍촌·염주동 주민 3천93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공원 내 불법 경작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서구청에 냈다”고 밝혔다. 중사모는 진정서에서 “광주의 한 가운데 있는 중앙공원에 최근 나무를 뽑아내고 불법 경작을 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경작 단속

▲철조망 등 폐쇄된 군사시설물 철거 등을 요구했다. 중사모는 지난 2005년 7월 중앙공원 인근 주민들이 만든 단체로 공원 내 쓰레기 줍기 등 공원 가꾸기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동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은 260만㎡ 규모로,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나무를 자르는 등 경작지 확대를 위한 상태 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 인근 주민들의 격정을 사왔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경작·벌목 등을 없애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원 내 경작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달 말에 조사가 끝날 것”이라며 “경과관을 설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유지는 단속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지에서의 불법경작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땅주인이 불법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대 교수·학생 33명

러시아 복지 현장 탐방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와 대학원 교수·학생 33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방문단(단장 이영철 교수)이 15일 사회 복지 현장 탐방을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자매학교인 러시아 국립 사회대의 초청을 받은 방문단은 오는 27일까지 이 대학 외국인 숙소에서 머물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등을 체험·견학한다. 이들은 러시아 국립 사회대 주코프 이바노비치 총장 면담과 이 대학 한국어과, 사회사업학과 학생들과의 좌담을 차례로 갖고 현지 사회복지사협회도 방문한다. 또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등 10여 곳을 방문한 뒤, 매일 조별 분임토의를 갖는 등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사회복지를 비교·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방문단은 또 초청 대학 측이 마련한 ‘한국의 날’ 행사에도 참여한다. 두 대학은 지난 5월 광주대에서 양교 총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고 교수·학생들을 교류하기로 했다. 러시아 국립 사회대는 학생 12만명, 교수 7천여 명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와 한국학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병마와 싸우는 노씨 가족에 힘을”

광주시 북구청 환경과 직원 노병찬(56·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일가족 3명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노씨의 부인 김희순(53)씨는 지난해 8월 위암 수술을 받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김씨는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으나 정밀 진단 끝에 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앞서 둘째 아들(25)은 지난 2000년 1월께

이러한 노씨의 딱한 소식을 전해지자 북구청 직원들은 지난 2월 초 상급을 모아 노씨에게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또 노씨의 광주상고 동문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노씨 가족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구에서는 현재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씨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움만으로는 현재 한 달 평균 15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을 보낸 분들은 북구청 환경과(062-510-1515)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한의원 전문 조부 허리디스크

M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주세요

문의 10821531-3838, 531-0700
523-4800, 011-9612-8530

연료비가 막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경매도! 침착하신 분께 난방이 적합합니다.

(주)태양상시 TEL 10821282-0101

SARA

SAIA

SAIA

SAIA